



강연자로 살려는 당신을 위한 로드맵

강연의 시대(오상익 저)
브런치북 대상 수상작으로
콘텐츠 탄탄

혹시 '반퇴세대'라는 말을 들어 보았는가? 조기퇴직을 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세대를 일컫는 직장인들의 신조어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직장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80%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인생 2막으로 창업을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뉴스나 언론매체에서 보는 창업시장은 결코 만만한 영역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논란뿐만 아니라, 블루오션이 될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큰 자본의 위험부담 없이 자신의 지식 자산으로 도전해 보는 강사의 영역은 참 매력적인 분야이다.

나도 지금은 1인 지식 기업가로서 주요 수입원이 강의이긴 하지만, 강사라는 직업도 경쟁이 만만치 않다. 아울러 1인 기업으로 독립하기 이전에 10년간 대기업 교육 담당자로서 지켜본 강사는 특출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지속성을 보장하기 힘든 직업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의하는 모습만을 보는 경우가 많기에 강의가 이뤄지기까지의 프로세스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강의에서 가장 힘든 분야도 나를 알려 청중 고객을 모으는 단계인데, 일종의 영업력인 셈이다.

강연 에이전트의 시각으로
본 강사의 조건

그런 면에서 지금 소개하는 책은 약간 좀 특별한 책이다. 시중의 책들이 대부분 강사인 저자가 강의 스킬을 다루